

## 몇 개의 전통 건축어휘의 어원과 표기

### A Study on the Etymology and Notation of Several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Vocabularies

오 창 명

Oh, Chang-Myeong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천 득 염\*

Cheon, Deuk-Youm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some of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vocabularies that have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the problem of decode, the problem of meaning, the meaning of explain meaning, and the problem of form analysis.

Especially, correct decode and interpretation of Uigwe's Korean ancient architecture borrowed character can correct old decode and interpretation. Furthermore, I confirmed that I could correct the Korean ancient architecture vocabulary that was expiscated wrongly. Especially borrowed characters corresponding to 머름[meoreum](paneling) have been known only far away 遠音[meoreum]. In addition, there were also 遠驗[meolheom] · 乙軒[meolheon] · 乙險[meolheom] · 乙音[meoreom], and so on.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decode these notations, it has become possible to assume that the original words of the modern language 머름[meoreum] also came from \*멀힘[meolheo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kinds of people like 付叱心[bussim] · 夫叱心[bussim] · 扶叱心[bussim] · 富叱心[bussim] · 富心[bussim]과 北叱心[bussim] · 北心[bussim]. You can also check the Korean ancient architecture vocabulary. However, corresponding words are difficult to find in modern Korean languages. However, in Jeju dialect, we can confirm the corresponding word. This word was used in the Joseon Dynasty, and confirmed that it is dead language today.

As mentioned above,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misconceptions about the decode and meaning of the architectural vocabulary made of borrowed character in existing architectural dictionaries, Korean dictionaries, and Korean ancient architecture related papers. Also, although the form is being confirm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need to be clarified, such as what the decode is, what the meaning is, and the origin I have also confirmed a number of things that need to be properly expomed in the original form, the original word. In the future, those who study Korean ancient architecture vocabulary and traditional architectural vocabulary should also be interested in these things and research it properly.

주제어 : 고건축 어휘, 전통 건축어휘, 차자 표기, 고유 어휘

Keywords : Ancient architecture vocabulary, Traditional architectural vocabulary, Borrowed character, Native tongue

#### 1. 서 론

전통 건축어휘라 하면, 전통적인 건축에 쓰였던 어휘를 이른다. 곧 지난 시대에 우리 한옥과 궁궐, 사원 등에 쓰였던 어휘를 말한다.

전통 건축어휘는 우리말로 전하는 것도 있고 한자어로 전하는 것도 있다. 표기상으로 보면, 한글로 쓰인 것도 있고, 한자로 쓰인 것도 있고, 차자 표기로 쓰인 것도

\* Corresponding Author : dycheon@hanmail.net

이 논문은 한국건축역사학회 2015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있다.

한자 학습서인 『訓蒙字會』의 中卷, 「宮宅」條를 보면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확인할 수 있다.

ㄱ) 다락, 입, 덕누리, 부릅, 담, 도리, 기슭, 박공, 섬, 살문, 매유통, 버텨, 무르, 대공, 보, 기둥, 서, 바조, 지도리, 장군목, 도장, 몸채, 가개, 둥계, 차면담, 둥길, 남, 섬, 뜰, 귀공, 서흐레, 보, 울, 세당

ㄴ) 살문, 문짝, 문선, 청널, 창살, 뒷간, 문돌, 문전, 둥길

ㄷ) 창, 문, 덩즈, 횡랑, 허간, 란간, 쥬쥬

ㄱ)과 같은 어휘는 고유어 계통이고, ㄷ)과 같은 어휘는 한자어 계통이며, ㄴ)과 같은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섞인 것이다. 한자어 ‘창’은 한자 窓에서 온 것이고, ‘문’은 한자 門에서 온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의 儀軌類 가운데 하나인 『寧陵山陵都監儀軌』(1659)의 「造成所: 物種」을 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확인할 수 있다.

ㄹ) 立工, 道里, 昌防, 樑, 曲袱, 舍羅, 隅只…

ㅁ) 中道里, 從袱, 大袱, 中衿, 長舌, 初立工, 二立工…

ㅂ) 花盤, 柱頭, 風遮板…

ㄹ)은 고유어의 차자 표기이고, ㅁ)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섞인 것이며, ㅂ)은 한자어를 표기한 것이다. 가령 隅只는 고유어 ‘모끼’(현대국어: ‘모끼연’)를 표기한 것이고, 中道里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어인 ‘똥도리’(현대국어: ‘중도리’)를 표기한 것이며, 花盤은 한자어 ‘화반’을 표기한 것이다.

전통 건축어휘 가운데는 현대에 전하는 말과 옛말에 쓰였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은 필자가 미처 읽어보지 못한 책이나 연구 논문 등에 언급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전통 건축어휘의 연구는 건축학자들과 국어학자들의 연구가 있을 수 있다. 건축학자의 연구는 장기인(1958; 1998), 심대섭·주남철(1989), 김동욱 외 3인(1990), 김도경·주남철(1994), 김왕직(2000; 2005; 2007), 경기문화재단(2007), 김재웅(2008), 영건의례연구회(2010) 등이 있다. 국어학적인 연구는 황금연(1997), 김연주(2003), 오창명·손희하(2005; 2007; 2008), 오창명·손희하·천득염(2007; 2008) 등이 있다. 건축학자의 연구는 국어학적인 지식의 부족으

로 의례류 어휘들을 제대로 해독해서 구명하지 못하고, 국어학자의 연구는 고건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어원을 제대로 구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전하는 전통 건축어휘 가운데 그 어형을 再考해야 하거나 의미상 재고해야 할 것, 儀軌類에서 확인된 것들 몇 개를 선정하여 考證學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여기서 몇 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는, 제대로 해독하거나 이전 음성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들 가운데, 의례류에서 표기가 확인되어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증학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해당 표기들을 바탕으로 일정한 근거를 세워 그 음을 이론적으로 밝혔다는 뜻이다.

가령 현대국어에서 ‘머름’으로 전하는 건축어휘는 18세기 의례에서 遠音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물론 그 이전의 말도 ‘머름’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의례류를 살펴본 결과, 遠音[머름]에 대응하는 다른 차자 표기로 ㄴ乙軒과 ㄴ乙險, ㄴ乙音, 彌音 등이 17세기 의례는 물론 18세기 초반, 중반 의례류에서 확인되었다.

이들로 보아, ‘머름’의 옛말은 “\*멀현<sup>1)</sup>”이나 ‘멀힘’ 정도로 실현되고, 그 뒤에는 “\*멀엄” 정도로 실현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중세국어에서도 우리말 ‘멀힘’이 쓰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멀힘’이 “\*멀엄”을 거쳐, 그리고 그 뒤에 “\*멀음”을 거쳐 ‘머름’으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물에서 이렇게 고증한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2. 본 론

이 논의에서 언급할 것은 의례류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遠驗·ㄴ乙軒·ㄴ乙險·ㄴ乙音·彌音·遠音, 圓陰

積貼·接貼·赤貼, 赤貼金·赤貼鐵, 立赤貼, 臥赤貼·橫赤貼, 赤貼板, 廣赤貼, 隅赤貼·方赤貼, 隅曲赤貼, 曲赤貼, 鳳赤貼·鳳頭赤貼, 馬蹄耳赤貼, 耳赤貼, 召伊赤貼, 于金赤貼

立工·立拱·立拱·翼工, 初立工·初立拱

付叱心·夫叱心·扶叱心·富叱心·富心 > 北叱心·北心

1) 앞의 \*는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한자 차용 표기를 가지고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을 나타내는 부호임.

椽兒之·甫我之·甫兒之·甫兒只·椽兒只·椽阿支·椽阿只·椽奉·椽我之/浮阿只·浮阿·浮兒只

安草工·案草工·按草工·按草拱·眼草工·案初工

飛蓋·飛蓋·飛介, 飛乃, 浮飛乃, 草飛乃

簾衣·斂衣·斂依·廉衣·簾依·廉依·念衣·念依·斂隅·廉隅·簾隅/餘隅·余隅/斂衣板·廉衣板·廉依板·斂隅板·廉隅板

沙乙味·箭尾·娑味·娑尾·山彌

廣釘, 頭釘, 無頭釘, 廣頭釘, 道里頭釘·道乃頭釘·道內頭釘

風波鐵·風波金·風破金, 風破回·風破回金·風破回鐵/風板金·風板鐵

付叱姿·付叱次乙·毘姿·扶姿·扶次乙·夫姿·夫次乙·浮姿·浮次乙·夫草乙

之介·支介·之開·之箇·支箇·支介·戶, 之介門·支介門·支箇門, 之介機, 之介門機

樑之末(?)/樑之末(?)

2-1. 遠驗[‘멀힘’]·ㄱ乙軒[‘멀헌’]·ㄱ乙險[‘멀험’] > ㄱ乙音·彌音·遠音[‘머름’] / 彌音板[‘멀엄널’ > 머름널] / 遠音板[‘멀엄널’ > 머름널] / 圓陰(원음) / 童子ㄱ乙險[‘동즈멀험’ > 동즈멀힘] / 遠音童子·彌音童子[‘멀엄널’ > 머름널] / 彌音廳板·遠音廳板[‘멀엄청널’ > 머름청널]

遜志閣七間半內…遠驗先左耳十二隻於骨具 [新造] 分合四隻於骨具 [新造] — 『儲承殿儀軌』, 1648, 「造成間閣秩」

通慶門內行閣二間 [仍修補而北面及西面設ㄱ乙軒障子十二隻假柱三介新造…]

— 『孝宗殯殿都監儀軌』, 1659, 「凶禮」, 殯殿[殯宮]·魂殿[魂宮]

本所所掌床卓 仍修補所入 龕室ㄱ乙險十二間 每間童子ㄱ乙險等 付接所入 并以磨鍊 手本後錄爲去乎 上下進排事

— 『永寧殿修改都監儀軌』, 1667, 「手本秩」, 丁未六月初六日

殿內…ㄱ乙音木二箇

— 『宗廟改修都監儀軌』, 권1, 1725, 「燒火秩」

正殿…遠音童子二十六介 板二十立

— 『乾隆十三年戊辰正月 日眞殿重修都監一房儀軌』, 1748, 「稟目秩」, 戊辰正月二十二日, 後

鐵物所入…彌音板朴只二寸五分釘五十介 彌音童子朴只五寸召釘三十介 [以上爐冶所]

— 『順懷世上諡封園都監儀軌』, 1755, 「園所造成所: 稟目秩」, 乙亥六月日

현대국어 ‘머름’(바람을 막거나 모양을 내기 위하여 미닫이 문지방 아래나 벽 아래 중방에 대는 널조각)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는 遠驗·ㄱ乙軒·ㄱ乙險·ㄱ乙音·遠音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가운데 遠音은 현대국어의 ‘머름’에 바로 대응

하는 표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遠驗과 ㄱ乙險, ㄱ乙軒 등은 “멀힘”이나 “멀헌” 정도의 고유어를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옛말 사전이나 현대 국어사전을 보면, 馬廐나 馬廐間의 뜻으로 쓴 중세국어 ‘멀힘’이 올라 있다. 그 자료를 보면, “閑 멀힘 한 馬關良馬所” [『훈몽자회(예산 문고본)』, 하권, 1527, 8쪽]라 했다. 馬關良馬所는 좋은 말을 막거나 가두어 놓은 곳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예들도 확인할 수 있다.

簪纓한 사름이 모드니 멀허멧 머리 우르고 (盞簪喧櫪馬)

— 『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 11권, 1481, 37쪽

雄壯한 양주는 멀허메 굽스러서 恩惠를 투디 아니흐리로소니 (雄姿未受伏櫪恩)

— 위의 책, 17권, 1481, 30쪽

이들 예문에서 확인되는 ‘멀힘’은 한자 櫪의 번역어로 쓰였다. 櫪은 마구간의 바닥에 깔아 놓은 널빤지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세국어 ‘멀힘’은 소를 기르는 마구간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 ‘소나 말을 가두기 위해 깔 널이나 막은 널’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 큰사전 4』(한글학회, 1992)나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에는 중세국어 ‘멀힘’이 ‘마구간’을 뜻하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의례에서 확인되는 遠驗과 ㄱ乙險은 중세국어 ‘멀힘’을 반영한 차자 표기이고, 이 ‘멀힘’의 변음인 “멀헌”을 반영한 차자 표기가 ㄱ乙軒이라 할 수 있다. 軒은 난간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므로, ‘멀힘’의 ‘힘’을 軒으로 표기했을 수도 있다. 18세기에는 둘째 음절 첫 소리에서 ‘ㅎ’가 묵음화하여 “멀엄” 정도로 실현되고, 이것을 반영한 차자 표기가 ㄱ乙音과 彌音, 遠音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ㄱ乙音은 18세기 초기 의례에서, 彌音과 遠音은 18세기 중기 의례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彌音의 彌는 이의 약체자로 쓰이는 ㄱ를 제 글자로 쓴 것인데, 음은 ‘미’가 아니라 ‘멀’ 또 ‘근’이 탈락한 ‘머’를 표기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 건축어휘에 쓰인 遠音은 현대국어 ‘머름’에 바로 대응하는 표기로 봐왔다. 그러나 이것도 “멀엄”을 표기한 것이라 해야 할 듯하다. 이 “멀엄”은 현대국어에 이르러 ‘머름’으로 소리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童子ㄱ乙險은 “동즈멀힘 > 동즈멀힘”(동자와 머름)의 차자 표기이고, 18세기 의례에서 확인되는 遠音童子和 彌音童子는 ‘멀엄동즈’의 차자 표기라 할 수 있다. 彌音板和 遠音板은 “멀엄널 > 머름널”의 차자 표기이고, 彌音廳板和 遠音廳板은 “멀엄청널 > 머름청널”의 차자 표기라 할 수

있다.

현대국어 尔의 음은 ‘마’이고, 彌의 음은 ‘미’이다. 그런데 전통 건축어휘에서는 ‘머’의 음으로도 쓰였으니, 주의해야 한다.

『肇慶壇瀆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1900) 권1, 「工役」에서 확인되는 圓陰은 遠音을 ‘머름’으로 읽지 못하고, ‘원음’으로 읽은 뒤에 전혀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齋室十間所入…大工六坐 圓陰五部

— 『肇慶壇瀆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권1, 1900, 「工役」

2-2. 接貼[접첩] > 積貼·赤貼[적첩], 接貼鐵[접첩쇠] > 積貼鐵·赤貼金·赤貼鐵[적첩쇠], 赤貼板[적첩널] / 耳赤貼[귀적첩], 隅赤貼·方赤貼[모적첩], 臥赤貼[눈적첩], 于金赤貼[우금적첩]

敕命函一部所入…接貼二部 頭丁十六介 小頭丁一百八介

— 『孝宗仁宣后中宮殿冊禮都監都廳儀軌』, 1651, 「三房所掌」

寶·冊櫥各一坐…接貼鐵四介[釘丁具] 一寸廣頭丁二十四介[以上鐵染]

— 『祔廟都監儀軌』, 1661, 「甘結秩」, 七月初六日

兩堂室門內面八間所入 將軍石兩端良中 積貼朴排爲良沙 堅實爲乎等以 計數手本爲去乎 同積貼十六箇 每貼朴只一寸廣頭釘三箇式進排事

— 『永寧殿修改都監儀軌』, 1667, 「手本秩」, 丁未五月十七日

赤貼次材木三條 清板次廣厚板二立

— 『莊陵封陵都監儀軌』, 1698, 「移文秩」

현대국어 ‘경첩’(여닫이문을 달 때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하여 문짝이나 창문을 다는 데 쓰는 철물)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로 積貼·接貼·赤貼 등이 쓰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경첩’에 대응하는 고유어는 근대국어에서 확인되는 ‘적첩’(合葉 적첩…小合葉 존 적첩; 『한청문감』, 9권, 1770?, 72쪽)이다. 이 ‘적첩’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가 바로 積貼과 赤貼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표기는 17세기 후반 의궤류에서 확인된다.

현대국어 ‘경첩’은 어원상 ‘겹첩’의 변음으로 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므로 근대국어 ‘적첩’은 ‘겹첩’의 변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적첩’ 이전에 “\*겹첩”(17세기 초반과 중반)이 쓰였을 것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 “\*겹첩”(接 브를 접; 『유합』, 상권, 조선 성종 때, 6ㄴ쪽 / 貼 팀바들 팀; 『훈몽자회』, 하권, 1576, 9ㄴ쪽)을 표기한 것이 接貼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 의궤와 17세기 초반 의궤에서 接貼과 接貼鐵을

여럿 확인할 수 있는데, 이 接貼이 ‘겹첩’ 정도의 소리를 반영하여 표기한 것이다. 接貼鐵은 ‘겹첩쇠’의 표기라 할 수 있다.

積貼과 赤貼은 積貼鐵·赤貼金·赤貼鐵, 赤貼板 등으로도 표기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적첩쇠 > 적첩쇠’와 ‘적첩널’의 차자 표기이다.

한편 의궤류에서 耳赤貼과 隅赤貼, 臥赤貼, 于金赤貼 등도 확인되는데, 각각 ‘귀적첩’과 ‘모적첩’, ‘눈적첩’, ‘우금적첩’의 차자 표기라 할 수 있다.

2-3. 立工·立拱[입공] > 翼工[익공] / 初立工·初立拱·草立工[초입공] > 初翼工[초익공] / 二立工·二立拱[이입공] > 二翼工[이익공], 再翼工[재익공] / 毛里工[모리공], 退里工[무리공], 無立工[무립공] > 無翼工[무익공] > 物里工·勿里工[무립공]

丁字閣六面八雀…初立工十四…二立工十四…中道里毛里工四樓柱半條

— 『寧陵山陵都監儀軌』, 1659, 「造成所: 物種」

本所再鍊時 花盤·初立拱·行拱·二立拱·大拱等 出草次 四張付破油芑二浮 及圖形勿每次 四張付破油芑一浮等 上下進排事

— 『永寧殿修改都監儀軌』, 1667, 「手本秩」, 丁未閏四月十七日

丁字閣退拜一間…塔舌退里工十六次材木三條

— 『山陵都監儀軌』, 1673

齋室…草立工出本 無立工出本 案草工出本

—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

正堂二十間新造所入…初翼工三十六…再翼工三十六…無翼工十六

— 『改建都監義軌』, 권1, 1776, 「所入」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에 “익공(翼工): 침차(檐遮) 위에 소로와 함께 앉는, 짧게 아로새긴 나무”라 설명하면서, 현대국어 ‘익공’이 한자어 翼工에 대응하는 것인 듯 설명했다. 그러한 것은 『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1998)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장기인(1998)에서 “10965. 무립공 無里工, 無翼工, 勿翼工: 쇠서가 초엽무늬 새김으로 된 것…”이라는 설명에서, ‘무립공’과 無里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위안이 된다.

17세기 의궤류에서 立工·立拱으로 표기되고, 18세기 중반까지도 立工으로 표기되다가, 18세기 중·후반 의궤에서부터 翼工으로 표기되기 시작했으니, 원말은 ‘익공’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無翼工에 대응하는 표기가 17세기 의궤에서 확인되는 毛里工과 退里工을 고려하면 ‘모립공 > 모리공’ 또는 ‘무립공 > 무리공’ 정도로 실현되었다는 것도 유의할 일이다. 18세기 의궤에서는 無立工[무립공]과 無翼工[무익공]으

로도 표기되었다. 더욱이 中道里毛里工과 塔舌退里工 등에 대응하는 본디 고유어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2-4. 夫叱心·付叱心·扶叱心·富叱心·富心[붓심] > 北叱心·北心[붓심] / 夫叱心草[붓심새]

櫺宮排設…夫叱心二 彩花席紫的縵紫的纓子結之 [分長興庫·尙衣院] — 『仁祖大王山陵儀軌』, 1649, 己丑五月十六日甘結

諸色工匠過冬土宇內地排空石一百立及富心穀草每一間一同式…磨鍊上下進排爲於

—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1662, 庚子十月初十日

蓋瓦撤下次 大竹十六箇 付叱心次 空石一百六十立 用還次以上下進排事

— 『永寧殿修改都監儀軌』, 1667, 「手本秩」, 丁未閏四月十七日

印筒朱筒北心次及裏次白休紙八兩 上下進排事

— 『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1690

隧道閣二間所入…夫叱心草五百同 [內三百同取用]

— 『山陵都監儀軌』, 권2, 1701, 「隧道閣二間所入」

付叱心·夫叱心·扶叱心·富叱心·富心 > 北叱心·北心 등에 대응하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1998), 『한국한자어사전』(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1995)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付叱心·夫叱心·扶叱心·富叱心 등은 ‘붓심’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17세기 의궤류에서 많이 확인된다. 富心도 ‘붓심’의 불완전한 표기로, 말음 ‘ㅅ’ 표기인 叱을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중반 의궤에서 北叱心과 北心이 확인되는데, 이들도 ‘붓심’을 표기한 것이다. 北心은 北叱心에서 叱을 생략한 것이다.

夫叱心草는 ‘붓심새’의 차자 표기로 볼 수도 있고, ‘붓심’의 재료로 쓸 ‘새’의 표기로 볼 수도 있다.

이 어휘는 충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 남아 있는 ‘북세미’를 이르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검불’(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충남 방언이라 했다. 그러나 제주말에서는 ‘북세미, 북시미’(같은 뜻으로 째뎡이, 째뎡, 째뎡이 등도 쓰임) 등으로 “두툼하게 째이 깔려 있는 더미나, 그렇게 깔리는 째”을 이르거나, 표준어 ‘째뎡’(째단을 모아 한 덩이로 만든 묶음)에 대응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 제주말 ‘북세미, 북시미’가 의궤류에서 확인되는 付叱心の 후대형이라 할 수 있다.

2-5. 樑阿只·樑兒之·甫我之·甫兒之·甫兒只·樑兒只·樑阿支·樑奉·樑我之[보받이] > 보아지 / 浮阿只·浮阿只·浮兒只[부아지]

齋室…無立工八介 樑阿只二介 行工二十

—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 「稟目秩」

正堂二十間新造所入…樑兒之十二長一尺二寸廣八寸厚三寸二分以土頭折木取用

— 『改建都監義軌』, 권1, 1776, 「所入」

長安門…高柱四箇…樑奉五箇

— 『華城城役儀軌』, 권5, 1801, 「財用上」

현대국어 ‘보아지’(기둥머리에 끼워 보의 짜임새를 보강하는 짧은 部材)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는 樑阿只·樑兒之·甫我之·甫兒之·甫兒只·樑兒只·樑阿支·樑奉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들은 모두 ‘보아지’의 차자 표기이다. 樑奉은 『華城城役儀軌』(1801)에서만 보이는데, 이것도 ‘보아지’의 차자 표기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樑奉이 마치 한자어인 듯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보아지’는 ‘보 + 받-(받들·받치-) + -이’의 구성에서, ‘보받이’로 실현되었다가, 다시 ‘보아지’로 실현되면서, 樑阿只·樑兒之·樑奉·樑我之 등으로도 표기되었다.<sup>2)</sup>

18세기 의궤류에서 浮阿只와 浮兒只, 浮阿 등을 확인할 수 있다. 浮阿只와 浮兒只는 ‘보아지’의 변음 ‘부아지’를 표기한 것이고, 浮阿只에서 只를 생략해서 표기한 것이 浮阿이다.

中同累里介次長邊板六立 浮阿只次長邊板六立 朴工四次大不等半隻

—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 「別工作: 手本秩」

2-6. 草控·草工·初工·草栱·草空[초공] / 安草工·案草工·按草工·按草栱·眼草工·案初工[안초공]

假丁字閣…草工八次材木一條

— 『仁祖大王山陵儀軌』, 1649, 「己丑五月十六日甘結」

靈慶堂前面四間…草控所入 唐朱紅四兩

— 『永寧殿修改都監儀軌』, 1667

安草工次宮材三條 小露次材木三條

— 『莊陵封陵都監儀軌』, 1698, 「移文秩」

齋室…草立工出本 無立工出本 案草工出本

—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

案初工一次樓柱半隻

—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 「別工作: 手本秩」

현대국어 ‘초공’은 “큰 규모의 목조 건축물에서, 도리가 좌우로 구르지 아니하도록 기둥 위와 도리 사이에 설치하는 기둥 받침(풀잎 무늬를 새겨 넣음)”이라 하고, 한자어 草栱과 草工에 대응시켰다. 그러나 의궤류에서 草栱은

2) 樑奉이 奉의 ‘받’으로 쓰인 예는 奉支郎[바지랑]에서도 볼 수 있다.

확인되지 않고 草控과 草工, 初工 등이 확인될 뿐이다. 이들 한자 표기는 모두 ‘초공’에 대응하는 한자어가 아니라, 차자 표기라는 것을 염두에 뒤야 한다.

현대국어 ‘안초공’(기둥머리에 끼워서 중심포를 받치는, 꽃무늬가 새겨진 널빤지)도 한자어 按草工에 대응시켰는데, 이도 ‘안초공’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외에도 安草工·案草工·按草栢·眼草工·案初工 등으로도 쓰였는데, 이들도 모두 한자 차용 표기일 뿐이다.

2-7. 飛蓋·飛蓋·飛介·飛箇[늘개], 飛乃[늘애], 浮飛乃[솜늘애], 浮飛蓋[솜늘개], 編飛介·編飛箇[엮근늘개]

拜位廳二間…蓋覆…四覆藁草浮飛乃 五覆藁草飛乃 入量覆之後 以藁索結網覆之

— 『仁祖大王山陵儀軌』, 1649, 「己丑五月十六日甘結」

山陵所用 雜物中 浮飛介·蓋草飛介·蒿索·正蒿草等 物 其數不少

— 『山陵都監儀軌』, 1649, 己丑六月初八日, 「京圻監司了」

隧道閣二間所入…藁草浮飛蓋六十番

— 『山陵都監儀軌』, 권2, 1701, 「隧道閣二間所入」

編飛介一百五十同 — 『孝宗寧陵遷陵都監殯殿所儀軌』, 1673

飛蓋와 飛蓋는 ‘늘개’의 차자 표기이고, 飛乃是 ‘늘개’의 변음인 ‘늘애’(두푼 늘애/覆苔; 『법화경언해』, 2권, 1463, 105쪽)를 표기한 것이다. ‘늘애’는 현대국어에서 ‘나래’(충남·함경 방언), ‘날개’(전남·함북 방언), ‘느람지’(제주 방언) 등으로 이어졌다. 현대 표준어 ‘이엉’(초가의 지붕이나 담을 이거나 덮기 위하여 짚이나 새 따위로 엮은 물건)에 대응하는 말이다.<sup>3)</sup>

浮飛蓋는 ‘솜늘개’의 차자 표기이고, 浮飛乃是 ‘솜늘애’의 차자 표기이다. 현대국어로 하면, 각각 ‘뚝날개’, ‘뚝나래’ 정도가 될 것이다. 浮로 표기된 ‘뚝’(芻 뚝 든; 『왜어유해』, 하권, 1781~1782?, 15쪽)은 현대국어에서 ‘뚝’(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으로 전한다.

編飛介·編飛箇은 ‘엮근늘개 > 엮끈늘개 (> 엮은늘개)’의 차자 표기이다.

2-8. 簾衣·斂衣·斂依·廉衣·簾依·廉依·念衣·念依[여미], 斂隅·廉隅·簾隅[어모], 餘隅·余隅[어모], 斂衣板·廉衣板·廉依板[여미널], 斂隅板·廉隅板[어모널]

簾衣雲角長各四尺廣三寸五分厚五分

—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一房儀軌』, 1610

櫺宮…斂衣<sup>4)</sup>板四…斂衣朴只一寸釘七十介

— 『仁祖大王山陵儀軌』, 1649, 「己丑五月十六日甘結」

3) 『木川邑志』(1779)의 「軍器」조를 보면, “南飛蓋[남날개]”라고 하여 ‘날개’(늘개의 변음)의 표기로 飛蓋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南飛蓋는 다른 자료에서는 南飛介·南飛箇 등으로 표기되었다.

上方木有簾衣長四尺四寸廣一寸二分厚五分用二年木

— 『英祖王世弟受冊時冊禮都監儀軌』, 1721

斂隅板朴只二寸丁十五介

— 『溫陵封陵都監儀軌』, 1739, 「鐵物秩」

彩輿一部…廉隅赤貼次楸板一立

—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1800, 「稟目」, 庚申正月十三日, 後

廉隅板六立朴只四寸頭釘九十箇

— 『王世子嘉禮都監儀軌』, 하권, 1819

東西溫堧四間 與前退二間 左右餘隅所入慶石二十四立…

—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권3, 1895

東西溫堧三間 與前退二間 左右餘隅舖陳所入慶席十八張…

—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三房儀軌』, 1903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여모’(서까래나 널마루 따위의 앞에 가로 대어 가리는 널빤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편 한국건축사전』(1998)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표기인 廉隅<sup>5)</sup>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와 18세기 의궤류에서 斂衣·斂依·簾衣·廉衣·廉依·簾依·念衣·念依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여모’의 이전형은 ‘여미’ 정도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20세기 의궤류에서는 廉隅뿐만 아니라 斂隅·簾隅, 餘隅·余隅 등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17세기까지만 해도 ‘염의[여미]’ 정도로 실현되었던 것이 18세기와 19세기에는 ‘염우[여모]’로도 실현되고, 20세기에 ‘여모’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斂衣板·廉衣板·廉依板과 廉隅板·斂隅板 등은 각각 ‘여미널’과 ‘어모널’의 차자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날은 주로 ‘어모판’이라 하고 있다.

林樓餘隅는 ‘말루염오[--여모]’의 차자 표기이다.

2-9. 沙乙味·箭尾·沙味·沙尾·沙乙尾·山彌[살미] / 草箭尾[새살미] / 箭尾匠[살미장]

靈幄殿丁字閣齋室等…花草工草大工沙乙味刻出 本草次四張付油笔二浮等乙 前矣段 前排油笔以取用爲如乎

—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1601, 「甘結」, 七月二十四日

丁字閣退拜一間…四面箭尾次 材木二十四條

— 『仁祖大王山陵儀軌』, 1649, 「己丑五月十六日甘結」

丁字閣正殿五間 前退三間 初立工·二立工·草箭尾·椽蓋板·外木道里間架制度 一如崇陵丁字閣

— 『山陵都監儀軌』, 권2, 1681, 「造成所」

4) 斂衣는 斂衣(감의)와 같이 잘못 쓴 경우가 많다.

5) 일부 의궤류에서는 廉隅를 廣隅로 오독하여 오기한 것도 있고, 실제로 읽을 때도 廣隅로 오독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手決內 唐家及行閣沙乙味草本次油紙十張既已用下以此移文戶曹爲旂

— 『端懿嬪魂宮都監儀軌』, 上권, 1718, 「稟目秩」, 戊戌三月初十日  
 正殿內外四面沙乙尾昌防等處 鳩雀糞汚穢之物洗滌次 生布二疋及洗滌後圍排次揮帳依例進排事  
 — 『肅宗魂殿都監儀軌』, 1720

沙乙味·箭尾·筈味·筈尾·沙乙尾, 山彌 등은 모두 건축어휘 ‘살미’(공포에서 기둥 위의 도리 사이를 소의 혀 모양으로 꾸민 부재의 짜임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를 차차하여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건축사전은 물론 국어사전에서조차 山彌가 차차 표기가 아닌 듯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山彌는 ‘살미’ 또는 ‘살미’의 변음 ‘산미’를 표기한 것일 뿐이다.

한편 17세기 후반 의궤와 18세기 초반 의궤에서 草箭尾가 확인되는데, ‘새살미’를 표기한 것인 듯하나, 이에 대한 언급을 본 적이 없다.

箭尾匠은 ‘살미장 > 살미장’의 표기이다.

2-10. 風波金·風破金·風波鐵[풍바회쇠], 風破回[풍바회]·風破回金·風破回鐵[풍바회쇠] / 風板金·風板鐵[풍판쇠]

風波鐵五十介 [朴排廣釘具]  
 — 『山陵都監儀軌』, 1674, 「造成所: 雜物摠數」  
 風波金一百十箇 朴只二寸廣頭釘一百十箇  
 — 『莊陵封陵都監儀軌』, 1698, 「鐵物秩」  
 風破回鐵五十六介 大沙乙二巨里 三寸頭釘五十二介  
 — 『眞殿重修都監儀軌』, 권1, 1748, 「仍用秩」  
 中門四隻風破金具…合鐵物風破回金四十四釘具  
 —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 「稟目秩」

건축에 쓰이는 철물 어휘 가운데 하나로, 風波金·風破金·風波鐵, 風破回·風破回金·風破回鐵 등이 여러 의궤류에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독음이나 의미 등에 대해 언급한 논문이나 글은 없는 듯하다.

風은 훈독자로 쓰인 것인지, 음독자로 쓰인 것인지, 훈가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바람’의 옛말 ‘브름’, 또는 제주 방언과 황해도 방언 등에서 확인되는, 壁의 옛말 ‘브름’이나 ‘바람’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破回는 ‘바퀴’의 옛말 ‘바회 > 박회’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回를 생략해서 쓴 것이 破 또는 波인 듯하다. 金과 鐵은 ‘쇠’의 차차 표기로, 흔히 생략되어 쓰이기도 했다.

결국 風破回金·風破回鐵은 ‘풍바회쇠 > 풍바회쇠’ 정도

를 표기한 것이고, 風破回는 ‘풍바회 > 풍바회’ 정도를 표기한 것이다. 風波金과 風破金, 風波鐵은 回를 생략한 것으로, 역시 ‘풍바회쇠’를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바람을 통하게 하기 위해 둥글게 구멍을 뚫어 만든 쇠를 이른다.

19~20세기 의궤류에서는 風板金(풍판금)과 風板鐵(풍판철)로 표기되었다.

柱帶鐵三十四箇 風板金釘具一百五箇  
 — 『顯穆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1822  
 碑閣九間所入…風板鐵二十八箇  
 —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권1, 1900, 「工役」

2-11. 頭丁·頭釘·頭錠[대갈못] / 廣頭丁·廣頭釘·廣頭錠[넙대갈못] / 無頭釘[민대갈못] / 道乙乃釘[돌너못] / 道乃頭釘·道內頭釘[돌너대갈못]·道里頭釘[도리대갈못] / 道乙乃廣頭釘[돌너넙대갈못] / 照音廣頭釘[비침대갈못 > 비침대갈못]

寶·冊櫛各一坐…接貼鐵四介 [釘丁具] 一寸廣頭丁二十四介 [以上鐵染]  
 — 『祔廟都監儀軌』, 1661, 「甘結秩」, 七月初六日  
 風波鐵五十介 [朴排廣釘具]  
 — 『山陵都監儀軌』, 1674, 「造成所」, 雜物摠數  
 先佐耳十六隻內…朱紅漆道乙乃木二十四介 [別工作以楸木精鍊造作次如朴排] 道乙乃釘二十四介 [鐵染爐冶所]  
 — 『山陵都監儀軌』, 1675, 甲寅十二月初五日, 「鐵物秩」  
 五寸道乙乃曲釘十二箇 二寸道乙乃曲釘五十六箇 五寸道乙乃廣頭釘二十二箇  
 — 『宗廟改修都監儀軌』, 권1, 1725, 「後」  
 道里頭釘六介  
 —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 「稟目秩」  
 五寸頭釘八百四十四箇 五寸無頭釘九十箇…道內頭釘二百七十四箇  
 — 『顯穆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권2, 1822

의궤류에서 확인되는 건축의 철물 어휘 가운데, 釘이나 丁, 錠 등으로 표기된 頭釘과 廣頭釘, 無頭釘, 道乃頭釘 등이 있다. 그런데 기존 사전에서는 이들을 잘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듯하다.

가령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대갈못’은 “‘광두정’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하고, ‘광두정(廣頭釘)’은 “대가리를 둥글넓적하게 만들어 장식 겸용으로 쓰는 못”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頭釘’은 표제어로 올라 있지도 않다.

『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1998, 61쪽)에서는, “1562. 대두정(大頭釘): 못 머리를 크게 만든 못”, “1563. 대갈못(大頭釘): 대가리가 뚱뚱하게 큰 못”이라 하여, 한편으로는 大頭釘과 ‘대갈못’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같은 책(1998, 369쪽)에서는 “10489. 두정(頭釘): ① 머리가 있는 못. ↔ 민머리못. ② 머리가 볼록하게 된 못”이라 설명했다.

頭釘·頭丁·頭錠 등은 고유어 ‘대갈못’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이고, 廣頭釘·廣頭丁·廣頭錠 등은 ‘넙대갈못’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이다. 분명한 것은 頭釘·頭丁과 廣頭丁·廣頭釘은 다른 못이라는 것이다.

無頭釘은 고유어 ‘민머리못’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이다. 道乃頭釘·道內頭釘 등의 道乃是 道乙乃釘, 道乙乃廣頭釘 등에서 확인되는 道乙乃에서 乙을 생략한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道乙乃·道乃是 ‘돌니’의 차자 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道乃頭釘이나 道乙乃廣頭釘은 대가리가 둥글게 된 대갈못이나 넙대갈못을 이르는데, 『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1998, 61쪽)에는 “원두정(圓頭釘): 둥근못”과 “도내두정(道乃頭釘): 머리가 홈 구멍(도내)에 맞게 만든 못”이라 하였다. 道乃를 ‘홈 구멍’이라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道乃是 道內로도 표기했는데, ‘돌에 > 도래’(둥근 물건의 돌레)를 표기한 것이다.

照音廣頭釘은 ‘비침넙대갈못’의 차자 표기이다.

2-12. 付叱恣·付叱次乙·靛恣·扶恣·扶次乙·夫恣·夫次乙·浮恣·浮次乙·夫草乙[부출]

本所所掌砧家今方修理爲如乎 方下木腰木扶恣木臼等物 及 泡匠所用 石磨二部等 例自繕工監進排爲如乎

— 『顯宗殯殿都監儀軌』, 1675

靛恣次長小條伊四箇…屏風六帖所入加磨鍊 靛恣長小條里十二箇每帖監試落幅紙 [一軸式六軸]

— 『宗廟改修都監儀軌』, 권1, 1725, 乙巳十二月十一日, 「後」

柱八…門浮恣小條伊二箇 — 『宗廟改修都監儀軌』, 권1, 1725 把子門一隻所入 左右靛恣次小椽木二介

—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권下, 1730

付叱恣·付叱次乙·靛恣·扶恣·扶次乙·夫恣·夫次乙·浮恣·浮次乙·夫草乙 등은 표준어의 ‘부출’(가구 따위의 네 귀퉁이에 세운 기둥)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이다. 제주 방언의 ‘문부출’(문틀: 창문이나 문짝을 달거나 끼울 수 있도록 문의 양옆과 위아래에 이어 댄 테두리)의 ‘부출’에도 대응하는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문짝’에 대응하는 ‘부체’[半門스부체 燭스그르메에 여럿거늘 다도리라 흐다가 물근 방하를 보라; 『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 11권, 1481, 43쪽]를 확인할 수 있고, 근대국어에서는 “犁槩 보스부출나모 (『역어유해』, 하권,

1690, 7쪽)”에서 보듯이, ‘부출’과 ‘부출나모’를 확인할 수 있다.

‘부출’은 중세국어 ‘붓-’에 접사 ‘을’이 붙어서 ‘부출’(문틀)로 실현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출 > 부출’ 등으로 실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2-13. 之介·支介·之開·之箇·支箇·支介·戶[지계], 之介門·支介門·支箇門[지계문], 之介機[지계틀], 之介門機[지계문틀]

拜位廳二間…御間大之介四浮 左右挾間大之介各三浮

—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1601, 「造成所」

典祀廳 溫埃一間 之開一隻 窓二隻 林樓三間內 正間上設

—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 1645

奴子溫埃各一間…廁間各一間 二層壁櫥各一處窓具 雙窓各一障子各二 戶具

— 『仁祖大王山陵儀軌』, 1649, 己丑五月十六日, 「甘結」

薛里酒房進止內官房 [設於翰林房及房直房溫埃三間及窓戶之介…]

— 『肅宗魂殿都監儀軌』, 1720

分閣十六隻 障子一隻 支介一隻 廣窓五隻

—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 「菓日秩」

之介·戶·支介·之開·之箇·支箇·支介 등은 모두 현대국어 ‘지계문’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지계’(戶 지계 호; 『석봉천자문』, 1583, 21쪽)의 차자 표기이다. 원래 ‘지계’로 실현되었는데, 나중에 ‘문(門)’이 덧붙여 ‘지계문’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之介門·支介門·支箇門은 ‘지계문’, 之介機는 ‘지계틀’, 支介門機는 ‘지계문틀’의 차자 표기이다.

2-14. 耳機·歸機[귀틀], 貫耳機[관귀틀], 同耳機·同歸機·童歸機[동귀틀], 立耳機[선귀틀], 耳機木·歸機木[귀틀목], 耳機石[귀틀돌/귀틀석], 長耳機·長歸機[장귀틀], 短耳機[단귀틀], 平歸機[평귀틀], 都耳機[도귀틀], 間耳機[간귀틀], 童子耳機[동자귀틀]

機械排置所入…機械木 [後苑雜木斫伐取用]

— 『昌慶宮修理所儀軌』, 1633

長歸機一次不等半株 平歸機十七次宮材八株半隻

— 『大報壇重修儀軌』, 1704

耳機·歸機는 ‘귀틀’의 차자 표기이다. 同耳機·同歸機·童歸機은 ‘동귀틀’, 立耳機는 ‘선귀틀’, 耳機木·歸機木은 ‘귀틀목’, 耳機石은 ‘귀틀돌/귀틀석’, 長耳機·長歸機는 ‘장귀틀’, 短耳機는 ‘단귀틀’, 平歸機는 ‘평귀틀’, 都耳機는 ‘도



귀틀’, 間耳機는 ‘간귀틀’, 童子耳機는 ‘동자귀틀’의 차자 표기이다.

2-15. 樑之末 · 樑之末[‘붓지미?]

丁字閣六面八雀…樑之末大椽五條各長十五尺  
— 『寧陵山陵都監儀軌』, 1659, 「造成所: 物種」

樑之末朴只九寸頭釘四箇 七寸頭釘七箇  
— 『徽陵山陵都監儀軌』, 1688, 「各樣鐵物秩」

朴工朴只四寸頭釘四十箇 巨勿釘三十八箇 樑之末朴只九寸  
頭釘四箇 椽舎朴只二寸釘四百八十箇 小壁簷朴只七寸頭釘  
十五箇 九寸頭釘二箇

— 『孝章世子墓所都監儀軌』, 권2, 1728, 「稟目秩」,  
戊申十二月初一日, 後

17세기와 18세기의 여러 산릉도감의례나 묘소도감의례의 丁字閣에서 확인되는 樑之末은 의문이다. 그 독음은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막막하다.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혼종어인지도 막막하다. 樑之末은 樑之末로 표기한 의례도 있어서, 樑之末이 제대로 쓴 것인지, 樑之末가 제대로 쓴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표기로만 보면 ‘붓지미’ 정도를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결 어

기존에 알려진 우리나라 전통 건축어휘 가운데 讀音의 문제, 意味의 문제, 의미 풀이의 문제, 형태 분석의 문제 등 再考해야 할 것을 몇 개 살펴봤다. 특히 현재 남아 전하는 의례류의 고건축 차자 표기를 제대로 解讀하고 解釋하면, 기존에 잘못된 해독과 해석, 나아가 잘못 比定한 고건축 어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대국어 ‘머름’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는 기존에 遠音만 알려졌으나, 이외에도 遠驗 · ㄱ乙軒 · ㄱ乙險 · ㄱ乙音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표기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현대국어 ‘머름’은 중세국어에서 ‘멀힘’으로 표기되고, 차자 표기에서도 遠驗 · ㄱ乙軒 · ㄱ乙險 · ㄱ乙音 · 遠音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말은 ‘멀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遠驗 · ㄱ乙險은 ‘멀힘’의 차자 표기이고, ㄱ乙軒은 ‘멀힘’의 변음 ‘멀현’의 차자 표기이며, ㄱ乙音 · 遠音은 ‘멀힘’의 변음 ‘멀음 > 머름’의 차자 표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국어 ‘머름’은 중세국어 ‘멀힘’이 ‘멀현’과 ‘멀음’과 ‘머름’의 과정을 거쳐 변해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 付叱心 · 夫叱心 · 扶叱心 · 富叱心 · 富心과 北

叱心 · 北心 등의 건축어휘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말은 현대 국어사전이나, 고건축 관련 사전이나 논문 등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서 그에 대응하는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조선시대에 쓰였던 것인데, 오늘날은 사어화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논의했던, 의례류 표기를 해독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遠驗 · ㄱ乙險[멀힘], ㄱ乙軒[멀현: 멀힘], ㄱ乙音 · 彌音 · 遠音 [멀음], 圓陰[‘遠音/멀음’을 다르게 쓴 것]

· 積貼 · 赤貼[적첩], 接貼[접첩], 赤貼金 · 赤貼鐵[적첩쇠], 立赤貼[선적첩], 臥赤貼[눈적첩] · 橫赤貼[ㄱ乙적첩], 赤貼板[적첩판/적첩널], 廣赤貼[넓적첩], 隅赤貼 · 方赤貼[모적첩], 隅曲赤貼[모곡은적첩], 曲赤貼[곡은적첩], 鳳赤貼[봉적첩] · 鳳頭赤貼[봉머리적첩], 馬蹄耳赤貼[말굽귀적첩], 耳赤貼[귀적첩], 召伊赤貼[조이적첩], 于金赤貼[우금적첩/옥은적첩]

· 立工 · 立拱 · 立拱[입공], 翼工[익공], 初立工 · 初立拱[초입공 > 초입공]

· 付叱心 · 夫叱心 · 扶叱心 · 富叱心 · 富心 · 北叱心 · 北心[붓심], 夫叱心草[붓심새]

· 樑兒之 · 甫我之 · 甫兒之 · 甫兒只 · 樑兒只 · 樑阿支 · 樑阿只 · 樑奉 · 樑我之[보받이 > 보아비], 浮阿只 · 浮阿 · 浮兒只[부아지]

· 安草工 · 案草工 · 按草工 · 按草拱 · 眼草工 · 案初工[안초공]

· 飛蓋 · 飛蓋 · 飛介[늘개], 飛乃[늘애], 浮飛乃[솜늘애], 草飛乃[새늘애], 編飛介 · 編飛箇[엮근늘애]

· 簾衣 · 斂衣 · 斂依 · 廉衣 · 簾依 · 廉依 · 念衣 · 念依[여미], 斂隅 · 廉隅 · 簾隅 · 餘隅 · 余隅[여모] / 斂衣板 · 廉衣板 · 廉依板[여미널], 斂隅板 · 廉隅板[여모널]

· 沙乙味 · 箭尾 · 娑味 · 娑尾 · 山彌[살미], 草箭尾[새살미], 箭尾匠[살미장]

· 風破回金 · 風破回鐵 · 風波鐵 · 風波金 · 風破金[풍바회쇠], 風破回[풍바회] / 風板金 · 風板鐵[풍판쇠]

· 頭釘 · 頭丁 · 頭錠[대갈못], 廣頭釘 · 廣頭丁 · 廣頭錠 · 廣釘 [넙대갈못], 無頭釘[민대갈못], 道乙乃釘[돌니못], 道乃頭釘 · 道內頭釘[돌리대갈못], 道里頭釘[도리대갈못], 道乙乃廣頭釘[돌리넙대갈못], 照音廣頭釘[비침대갈못 > 비침대갈못]

· 付叱姿 · 付叱次乙 · 聿姿 · 扶姿 · 扶次乙 · 夫姿 · 夫次乙 · 浮姿 · 浮次乙 · 夫草乙[부출]

· 之介 · 支介 · 之開 · 之箇 · 支箇 · 支介 · 戶[지계], 之介門 · 支介門 · 支箇門[지계문], 之介機[지계틀], 之介門機[지계문틀]

· 樑之末 · 樑之末[붓지미?]

최근에 상당수 의례의 원문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영인본을 통해서 일반에게 소개되면서, 기존 건축

## 28 논문

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 행한 독음과 의미 등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여러 개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형태는 확인되고 있으나 그 독음은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기원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들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형, 곧 원래의 말을 제대로 批正해야 할 것도 여럿 확인하였다.

앞으로 고건축 어휘나 전통 건축어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연구해서 밝혀줬으면 한다.

### 참고문헌

1.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2. 김도경·주남철, 「『화성성역의궤』를 통한 공포부재의 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호, 1994a
3. 김도경·주남철, 「영조의궤를 통한 공포부재 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7호, 1994b
4. 김동욱·김경표·이왕기·박명덕, 「조선시대 건축용어 연구: 조선후기 영건의궤서에 기록된 부재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3호, 1990
5. 김연주, 「영건의궤류의 차자 표기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6.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 건축 용어』, 도서출판 발언, 2000
7. 김왕직, 「의궤의 건축용어는 용어통일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건축역사연구, 14권, 1호, 2005
8.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녘, 2007
9. 김재웅, 「조선시대 영건의궤의 목조건축용어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0. 심대섭·주남철, 「인정전 의궤에 기록된 공포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 6호, 1989
11.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도서출판 동녘, 2010
12. 오창명·손희하, 「『서궤영건도감의궤』 번역과 차자 표기의 해독 오류에 대하여: 건축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36호, 2005
13. 오창명·손희하, 「『문희묘영건청등록』의 차자 표기 연구(2)」, 국제고려학, 11호, 2007
14. 오창명·손희하, 「〈의궤〉류의 고건축 어휘 해독과 건축용어 선정」, 호남문화연구, 42호, 2008
15. 오창명·손희하·천득염, 「『서궤영건도감의궤』의 목재류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16권, 1호, 2007
16. 오창명·천득염·손희하, 「『서궤영건도감의궤』의 철물류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17권, 3호, 2008

17. 장기인, 『건축용어집』, 영륜사, 1958

18. 장기인, 『신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19. 황금연, 「『의궤』류의 한자 차명 표기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접수(2017. 9. 22)

수정(1차: 2017. 11. 18)

게재확정(2017. 11. 26)